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연구

A Study on the Pattern in Versace Men's Collection

구미1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채 선 미

Major in Fashion Design, Gumi College

Chae Seon-Mee

◀ 목 차 ▶

- | | |
|-----------------------------|-------------------------------|
| I. 서론 | V.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표현 방법 |
| II. 베르사체 남성복의 패션철학 | VI. 결론 |
| III.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의 흐름 | 참고문헌 |
| IV.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종류 | |

<Abstract>

Concerning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Italian men's fashion design,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obtained from an analysis of the works of Gianni Versace. First, regarding the use of patterns, existing patterns are enlarged, reduced, and transformed. Second, chosen patterns are closely examined and analysed before actual use. Third, the transfusion of unexpected patterns can be seen as the shapes of various combinations. Fourth, inspired patterns from art works or based on some exotic mood are also devised and used. Last, the selected patterns are used in all items of outerwear and innerwear. Furthermore, once a pattern is chosen, it is coordinated at the same time with a complete outfit of shirts, pants, suits, etc.

주제어(Key Words): 베르사체(Versace), 남성복 컬렉션(men's collection), 문양(pattern), 표현방법(expression)

Corresponding Author: Seon-Mee Chae, Major in Fashion Design, Gumi College, 407 Bugok-dong Kumi 730-711, Korea

Tel: 82-54-440-1260 Fax: 82-54-440-1319 E-mail: smchae@kumi.ac.kr

I. 서론

전통적으로 여성은 패션에 관심을 가지지만 남성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문화규범이 되어왔다. 여성의 의복은 부드럽고 색이 화려하며 장식적인 것이 기대되는 반면 남성의 의복은 튼튼하고 활동적이며 색은 칙칙하기까지 한 것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졌다(김정희, 2004).

그러나 최근 TV나 매체에 등장하는 남성을 보면, 흰 바지에 핑크 넥타이, 화려하고 큼직한 꽃무늬 프린트 셔츠를 입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규정이 변하게 되면서 남성들도 자신의 정체감과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복 텍스타일에서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프린트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복은 1990년대 초반 기존의 남성 정장 개념이 바뀌면서 남성 패션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한 감각의 과감한 트렌드들이 출현되었고, 많은 해외 남성복 브랜드도 도입되었다. 2003년 국내에 전개되어진 남성복 수입 브랜드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30%, 프랑스 20%, 미국 20%, 영국 11% 등으로(한국패션브랜드연감, 2003), 고급디자인 위주의 이탈리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남성복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자, 우리나라 해외브랜드 도입선도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남성복 디자인은 Valentino, Armani, Versace, Gucci, Moschino, Dolce & Gabbana 등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모두 그 해에 유행하는 색상이나 소재를 같이 사용하여 컬렉션을 발표하지만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방이나 카피가 아닌 자신들만의 디자인 표현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초반 남성복 디자인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Gianni Versace는 과거 여성복보다 더 화려했던 남성복이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발

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남성복에 있어서 넥타이를 제거하고도 완벽한 고급스러움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Richard Martin, 1998), 남성복 디자인에 큰 변혁을 일으켰고, 동시에 다른 많은 디자이너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또, 여성에게 한정되어 생각했던 색시함을 남성복에 도입함으로써, 남성복 디자인에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장식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독창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우리나라 남성복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남성복디자인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남성복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성복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복식사(장은정, 1991; 유정하, 1994; 황삼숙, 1998 등)와 마케팅(최성복, 2002; 류인숙, 2003; 정홍선, 2003 등)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최근 구성학(유경진, 2001; 이은진, 2003; 강여선, 2004 등)과 디자인(도희, 2002; 송은영, 2003; 정은정, 2003 등)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anni Versace의 남성복 GIANNI VERSACE UOMO(브랜드명:이하 베르사체라 표기)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표현 방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남성복에도 다양한 문양들이 전개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각종 문헌과 학술잡지 및 논문 등에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91 S/S 컬렉션에서 '03/04 F/W 컬렉션까지 Uomo Collezioni를 중심으로 Men's Collection, L'uomo Vogue 등의 패션 전문지에 나타난 311작품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베르사체 남성복의 패션철학

20세기 패션디자인의 초점은 여성에게 맞춰져 있었고, 당시의 많은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아직 남성복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때 Gianni Versace는 여성복에서만 행해졌던 패션쇼를 더 나아가 남성복에서

도 생각해 냈다. 그는 남성복에 있어 넥타이를 제거하고, 남성의 눈부신 육체와 성적매력 등을 고급스럽고 섹시하게 표현하여 넥타이 없는 남성상을 만들었다. 넥타이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행동이나 남성복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의 모습을 바꾸어 갔다.

그는 1946년 12월 2일 Reggio Calabria에서 태어나 18살에 어머니의 아틀리에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양재나 디자인의 비법들을 빠른 속도로 익혔다. 그는 “나고향 카라브리아는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와 로마, 동쪽의 비잔틴, 북쪽의 게르만 문화 등 모든 문화가 만나던 곳이었다고 그 모든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지금 내 피속을 흐르고 있다”고 하여 그의 패션이 이탈리아 전통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남 이탈리아의 강한 가족 의식과 전통송배를 중요시하는 민족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 그는 패턴 구입을 위해 런던과 파리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였는데 각 나라의 전통과 의상들은 그의 디자인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1972년 밀라노에 입성하여 크게 성공하였으며, 1978년 3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컬렉션을 발표와 함께 같은 해 9월에는 첫 번째 남성복 컬렉션을 열었다. 이 후 곳곳에 그의 부티크를 열어 패션 제국을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활동분야는 발레용 의상이나 향수 기성복에서 파리 하이패션에 이르며, 특히 남성복에 있어서 독특한 면모를 제시하였다(이탈리아 섬유산업, 1997). 이에 1988년 6월 “Cutty Sark”의 심사위원들은 남성복 부문에서 베르사체를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선정하였다.

또, 디오르, 입생로랑 등 그의 앞 세대 디자이너들이 고급 맞춤복에 전념하고 있을때 그는 생활 양식 즉 라이트 스타일을 지배하는 디자인 산업으로 패션을 확산시켜 나갔으며, 할리우드의 배우와 슈퍼 모델들이 그의 패션제품을 앞장서 선전해 주었다. 이에 그의 남성복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III.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의 흐름

베르사체 디자인은 컬러플한 색상 사용, 독특한 장식구나 디테일 사용, 넥타이 사용거부 등이 지켜지면서 강하고 섹시한 남성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91/92 F/W 컬렉션은 가장자리 처리에 프렛워크, 오버랩핑 등의 모든 기술적인 방법들이 사용되며 장식적인 요소가 두드러졌다. 소재는 스코틀랜드의 타탄과 벨벳과 데님이 섞여 있으며, 킹검 체크, 윈도우 체크, 하운즈투스 체크 등 다양한 체크 문양과 노랑, 보라 핑크 등 화려한 색상들이 사용되었다. '92/93 F/W 컬렉션에서는 '애니멀 하우스'라고 할 만큼 다양한 동물 문양을 선보였는데, 그 프린트는 혁신적인 테크닉으로 플레이트와 애니멀을 결합하거나 바로크와 미래주의를 결합시켜 독특한 효과를 냈다. '93 S/S 컬렉션에서는 바다의 왕자를 나타내는 블루 맨과 새로운 세계를 정복한 화이트 맨을 주제로, 양각 장식이 들어간 검은 가죽을 입은 밤의 전사들이 등장했으며, 태양이 프린트된 트로피컬 문양이나 다양한 색상의 가죽을 사용한 카우보이식 베스트도 나타났다. '93/94 F/W 컬렉션에서는 체크 문양이 주를 이루며, 오버코트, 셔츠, 베스트 등을 비롯하여 안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목걸이나 벨트 장식에 금속성을 이용한 화려한 장식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1994년부터 그 특유의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은 줄어들고 트렌드의 반영이 강하게 나타났다. '94 S/S 컬렉션은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넘어서 페미닌한 이미지가 부각되어 망사, 레이스 등 여성스러운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94/95 F/W 컬렉션은 베르수스나 이스탄테에서 여전히 그 특유의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문양들이 사용되지만 베르사체는 내추럴한 느낌이 강하게 반영되어 다양한 종류의 니트류와 그레이와 베이지 색상이 더해졌다. '95/96 F/W 컬렉션은 모든 엘레강스의 총동원한 듯한 모드로, 정확하게 비례가 이루어진 래퍼 재킷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지만 더욱 부드럽게 표현된 더블 고트가 돋보였다. 색상은 아이보리, 파스텔, 두 개의 톤을 섞은 이중색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최

고급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1996년 한동안 감소되었던 베르사체 특유의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초창기의 이미지에 더욱 정제되고 신선한 느낌이 부가되어졌다. '96 S/S 컬렉션에서는 경쾌하고 아방가르드하며 테크놀러지한 느낌을 자유롭고 도전적으로 표현했다. 클래식한 라인에 새로운 색상인 노랑과 핑크를 사용하고 흰색을 결합시켰다. 미니멀리즘의 반영인 듯 장식적인 비즈나 자수의 디테일이나 화려한 문양은 보이지 않았다. '96/97 F/W 컬렉션에서는 강하고 근육적인 남성의 이미지는 감소하였으나 동물문양에 장식적이고 메탈릭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다소 밤색 계열의 느낌이 강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색이 보여졌다. '97 S/S 컬렉션은 반짝이는 소재와 대담한 패턴을 사용하여 마치 캘리포니아 러브를 재현한 듯하였다. '97/98 F/W 컬렉션에서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오버코트가 선보였으며, 정장은 좀더 밀착되고 개인에 맞는 슈트로, 아메리카나 록스타일은 적고 이탈리아·라틴풍이 강했다. '98 S/S 컬렉션은 강한 대비를 주제로 톤온톤의 느낌이 두드러지고, 빛남과 불투명,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라인은 좀더 포멀하고 양복점에서 재단된 듯한 정장의 느낌이 강했으며, 장식적인 '테크닉이 많고, 소재는 부드럽고 강한 색상이 보여졌다. '98/99 F/W 컬렉션은 금장식의 오프꾸뛰르적 예복이 등장했다. 여전히 도시적이고 우아하며, 모조 다이아몬드와 메탈릭 장식을 사치스러운 감각으로 표현했다. 슬림한 라인은 몸의 형태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으며, 최고급 재단만이 표현할 수 있는 디테일이 돋보였다. 핀 스트라이프와 같은 클래식한 소재에 톤온톤의 울을 악센트로 표현했으며, 더욱 유연하고 착용감을 높여 주기 위해 라이크라 소재를 캐시미어나 앙고라 등과 혼합했다. '99 S/S 컬렉션에서는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특유의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의 혼합,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디자인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99/00 F/W 컬렉션에서는 신체를 다소 과장한 재단을 사용함과 동시에 몸에 딱 붙는 긴 재킷을 선보여 대조적인 멋을 추구하였으며, 캐시미어나 실크 등 천연 소재

들은 다른 섬유와 혼방하지 않고 그 질감과 빛깔을 최대한 살렸다. 또 다크 퍼플부터 다크 그린, 레드, 블루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색조와 고딕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금속의 베르사체 로고 또한 돋보였다(Esquire, 1999).

'00 S/S 컬렉션에서는 바다의 색을 모티브로, 재킷의 길이는 롱과 레귤러, 팬츠는 배기, 테이퍼드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리넨이나 실크를 사용하였다. 매두사가 아플리케된 블루종이나 T셔츠, 깃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폴로셔츠, 꽃무늬 자수나 바다속의 동물무늬나 타두를 프린트한 T셔츠도 선보였다. '00/01 F/W 컬렉션은 클래식한 원 버튼 재킷, 태슬이 장식된 에드워드안 코트와 가디건, 그래픽요소와 스크래치가 들어간 슈트 등으로 정장의 분위기를 주는 반면 슈트에 징이나 자물쇠 장식을 한 불량스런 이미지가 함께 나타났다. 또한 재규어 무늬의 변형인 흑표범 무늬나 레이저 프린트도 선보였다. '01 S/S 컬렉션은 새로운 황금시기로, 롱 헤어의 모델들은 핀 스트라이프 무늬의 정교한 정장에 순금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링이나 체인 팔찌를 착용했다. 또 저지의 수영복, 바로크 문양과 꽃줄기 무늬가 프린트된 실크 셔츠와 재킷이 선보였다. '01/02 F/W 컬렉션은 매두사의 보호 아래 새로운 신이 올림푸스로부터 내려온 듯하였다. 베스트처럼 입혀진 황금색 니트 스카프와 셔츠, 쇼울 라펠의 턱시도는 단추 대신 고대로마의 화폐 세르테르세스를 사용하여 최대한 럭셔리하게 보였다. 그리스적인 느낌이 강한 블루종에 아즈텍 문양은 전설의 엘도라도와 몬테즈마 보물을 회상하게 했다. '02 S/S 컬렉션은 뇌문이나 아라베스크, 다마스크 등 마치 벽지를 연상케 하는 무늬를 사용했다. 또, 바로크, 로코코, 일본 꽃문양 사용과 함께 컴퓨터 그래픽이나 바우하우스 영향을 받은 문양들도 선보였다. '02/03 F/W 컬렉션은 고딕과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지퍼와 가죽모자가 달린 파커나 조깅 슈트 등 스포티한 스타일을 동시에 보였다. '03 S/S 컬렉션에서는 보라색의 가는 스트라이프가 검은색 바탕에 마치 오션지처럼 그려진 검은색 바지를 선보였다. 시스루의 흰색 레이스 블라우스에는 진과 가느다란 넥타이를

코디했다. 엉덩이 부분을 감싸주는 드로우즈형 수영복에조차 갈색과 검은 색이 교차되는 스트라이프를 내세웠다. '03/04 F/W 컬렉션에서는 랩은 물론 테크노, 전자 음악과 드럼& 베이스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양한 소재들이 섞여서 사용되고 그런지 풍에 가장자리 장식이 두드러져 보였으며 힙합스타일에 스웨트셔츠와 야구모자로 마무리를 했다.

IV.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종류

베르사체에 사용된 문양은 매우 다양하다.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 등의 기본적인 문양을 활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애니멀 문양의 변형과 옵아트나 팝아트적인 문양도 선보였고, 이외에 다양한 지역·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획기적인 디자인들이 나왔다. <표 1>은 전체 수집된 작품 중 문양이 나타난 174작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연대별 문양 종류의 변화는 패션트렌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채선미, 2000).

1. 도트(Dot)

<사진 1>은 '9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T셔츠에

나타난 코인 도트(Coin dot)가 눈에 띈다. 코인 도트란 금속 화폐 “코인” 크기의 물방울 무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도트의 사이즈는 남성복에 사용되기에는 다소 큰 사이즈로 시원하고 색시함을 느낌을 준다. <사진 2>는 '98/99 F/W의 작품으로, 슈트에 사용된 잔잔한 느낌의 핀 도트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바디 전체에 사용되어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 3>은 '96 S/S의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트보다 크기가 크므로, 서클(Circle)이라 할 수도 있다. 선 부분만 남기고 안을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채움으로서, 가라앉은 느낌보다 떠다니는 듯한 가벼운 울동감이 세련되고 독특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도트 문양은 주로 S/S 컬렉션에 많이 나타났으며, 규칙 또는 불규칙적으로 핀도트에서 코인도트는 물론 서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표현되었으며, T셔츠, 셔츠, 슈트 등에 다양한 아이템에서 보여졌다.

2. 스트라이프(Stripe)

스트라이프는 컬러와 구성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져서 클래식한 느낌에서 개방적이고 경쾌한 이미지까지 그 연출이 다양하여, 정장에서는 정리된 느낌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며, 리조트 웨어에서는 활동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폭넓게 사

<표 1> 연대별 문양 비교

연대 문양	'91 S/S	'92 S/S	'92/93 F/W	'93 S/S	'93/94 F/W	'94 S/S	'94/95 F/W	'95 S/S	'95/96 F/W	'96 S/S	'96/97 F/W	'97 S/S	'97/98 F/W	'98 S/S	'98/99 F/W	'99 S/S	'99/00 F/W	'00 S/S	'00/01 F/W	'01 S/S	'01/02 F/W	'02 S/S	'02/03 F/W	'03 S/S	'03/04 F/W	Total(%)
Dot	3									1		1			1								2			8(4.6)
Stripe					1	1			6		2	1	4	1			1		1	1		3	1	7	1	31(17.8)
Check	5	2	1		3	1			13		1		4		2		1			1	1	3	1			39(22.4)
Geometry										1											5	3	1			10(5.7)
Animal		1	4									11														22(12.6)
Floral	1													1		1	3	5		1		5				17(9.8)
etc	2		2	8				1						1		3	5	4	3	1	1	2	5	9		47(27.0)
Total (%)	11 (6.3)	3 (1.7)	7 (4.0)	8 (4.6)	3 (1.7)	2 (1.2)	1 (0.6)	1 (0.6)	19 (10.9)	2 (1.2)	14 (8.0)	2 (1.2)	8 (4.6)	3 (1.7)	3 (1.7)	8 (4.6)	10 (5.8)	9 (5.2)	6 (3.5)	4 (2.3)	7 (4.0)	16 (9.1)	10 (5.8)	16 (9.1)	1 (0.6)	174 (100)



〈사진 1〉 Men' collection
91 S/S Vol.6, p.17



〈사진 2〉 Uomo Collezioni
'98/'99 F/W N.24, p.122



〈사진 3〉 Versace '96 S/S, p.15

용할 수 있다.

〈사진 4〉는 '94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서커 스트라이프(Sucker stripe)이다. 이것은 흔히 슈트에는 이용되지 않으나 베르사체에는 슈트에 상·하의에 과감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스트라이프 문양이 주는 정돈된 느낌보다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커를 이용하여 변형된 스트라이프의 느낌으로 흔들리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사진 5〉는 '97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이레귤러 스트라이프(Irregular stripe)이다. 일정하지 않은 스트라이프의 면적은 칼라와 상관없이 이미 면적감에서 가벼움과 무거움의 느낌을 반

복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에 화려하고 강한 색상들의 배열은 경쾌한 레저웨어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사진 6〉은 '99/00 F/W의 작품으로, 더블 스트라이프(Double stripe)의 변형이며, 일반적으로 더블 스트라이프는 연한 색 바탕에 짙은 색의 줄무늬가 들어가지만 베르사체는 반대로, 짙은 색 바탕에 옅은 색의 줄무늬를 사용하였다. 〈사진 7〉은 '0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슈트 전체에 핀스트라이프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슈트의 상의에 사선으로 독특하게 문양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스트라이프 문양은 대부



〈사진 4〉 Men' collection
'94 S/S Vol.18, p.119



〈사진 5〉 Uomo Collezioni
'97 S/S N.19, p.143



〈사진 6〉 Uomo Book
'99/00 F/W Vol.4 p.184



〈사진 7〉 Men' collection
'01 S/S Vol.46, p.55

분 F/W 컬렉션의 슈트에 많이 나타났으며, S/S 컬렉션에서는 포인트 디자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셔츠, 자켓, 베스트 등 다양한 아이টে에서 보여졌다.

3. 체크(Check)

체크문양은 전통적인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베르사체는 전통적인 느낌에 화려한 색상과 대담한 대비로 현란한 느낌을 주고, 매 시즌 신선한 변화로 그 독창성을 유지하였다.

〈사진 8〉은 '9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대담한 색상의 체크가 셔츠와 재킷에 표현되어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사진 9〉는 '94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블록 체크(Block check)의 변형이며, 블록에 여러 가지 색상과 장식적인 무늬를 첨가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사진 10〉은 '98/99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심플한 윈도 페인 체크와 허리 아래 부분에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를 혼합함으로써 단조로운 체크 슈트 전체에 재미를 더하였다.

베르사체 남성복에 나타난 체크문양은 F/W 컬렉션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가로 줄 모양과 세로 줄 모양이 교차하여 이루는 줄의 간격으로, 넓이에 변화를 평범한 문양에 변화를 주었다. '91 S/S 컬렉션과 '00 S/S 컬렉션에서는 셔츠, 자켓, 팬츠, 슈트

등 거의 모든 아이টে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4. 그래픽(Graphic)

기하학적 문양은 고대로부터 어느 민족에게나 널리 사용된 문양이다. 기본적으로 $\square \cdot \triangle \cdot \circ$ 형의 단순한 기하 도형이 색채와의 조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명확하고 신선한 감각의 표현이야말로 기하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이선화, 1992).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조작으로 된 기하 패턴이 등장하고 있는데 직선이나 곡선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단순하고 명쾌한 느낌을 준다.

〈사진 11〉은 '00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불규칙적인 직선의 흐름을 셔츠의 앞에 배치하였으며, 〈사진 12〉는 '01/02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스트라이프와 결합된 기하학의 문양이 셔츠와 넥타이에 디자인되어있다. 〈사진 13〉은 '02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기하학 문양의 경쾌하고 간결한 느낌에 파스텔톤의 색상으로 부드러움을 더하였다.

5. 애니멀(Animal)

애니멀 문양은 동물의 표피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 무늬를 프린트 한 것으로, 고대부터 신비한 느낌과 함께 강한 힘과 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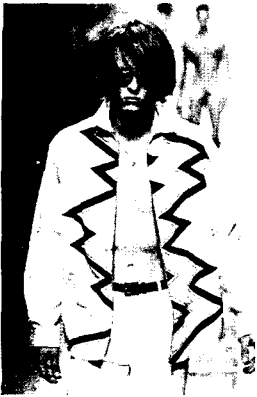
〈사진 8〉 Men' collection
'91 S/S Vol.6, p.13



〈사진 9〉 Men' collection
'94 S/S Vol.18, p.119



〈사진 10〉 Uomo Collezioni
'98/99 F/W N.19, p.143



〈사진 11〉 Men' collection
`00 S/S Vol.46, p.119



〈사진 12〉 Men' collection
01/02 F/W Vol, 48, p.99



〈사진 13〉 Uomo Collezioni
`02 S/S N.28, p.131

〈사진 14〉는 '9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와일드 바로크 문양과 재규어 문양을 실크에 프린트한 셔츠이다. 바로크의 문양과 의외의 애니멀 문양을 미스매치시켜 고급스럽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사진 15〉는 '92/93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셔츠와 재킷 모두에 동일한 지브라(Zibra)문양이 사용되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문양을 확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얼룩말의 무늬에서 느껴지는 동물적인 느낌보다 환상적인 느낌이 부각되었다. 〈사진 16〉은 '96/97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표범 무늬의 재규어문양이 매우 축소되어 재킷에 표현되고, 다른 종류의 애니멀 문양인 얼룩말의 지브라 문양이 셔츠에 함께 표현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베르사체 남성복에서는 주로 F/W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동물의 문양을 확대 또는 변형하거나 그래픽적인 느낌이 나도록 전개하여, 화려하고 엑조틱하면서도 거칠고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6. 플로랄 (Floral)

플로랄 문양은 다양한 크기의 꽃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무늬이다. 특히 꽃문양은 사실, 기하, 추상 무늬 등이 혼합된 복합 패턴이 주를 이루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17〉은 '98 S/S 작품으로, 나뭇잎을 단순화



〈사진 14〉 Versace signatures
`92 S/S, p.88



〈사진 15〉 Men' collection
`92/93 F/W Vol.12, p.27



〈사진 16〉 Uomo Collezioni
`96/97 F/W N.18, p.139



<사진 17> Men' collection
'98 S/S Vol.34, p.27



<사진 18> Men' collection
'00 S/S Vol.42, p134



<사진 19> Men' collection
'02 S/S Vol.50, p.88

한 후 확대하여 T셔츠에 프린트 하였는데 이 때 보라색 바탕에 검정색을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화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18>은 '00 S/S에 나타난 T셔츠로, 활짝한 꽃봉우를 단순화 하여 수채화로 자연스럽게 디자인하였다. <사진 19>는 '02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셔츠에 꽃잎부분과 수술 부분, 줄기 부분 등을 수채화 기법으로 풀어놓은 듯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베르사체 남성복에 나타난 플로랄 문양은 주로 S/S 컬렉션에 나타났으며, T셔츠, 셔츠, 재킷 등 다양한 아이템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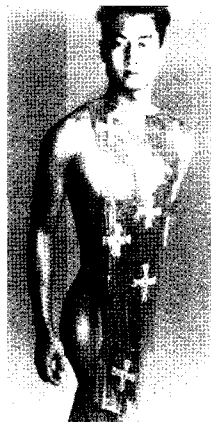
7. 전통문양

베르사체에는 과거로부터의 영감을 받은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화시킨 네오클래시즘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사진 20>은 '9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고대 그리스 벽화에 나오는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며,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얼굴을 옆으로 눕혀 배치함으로 더욱 이색적인 느낌을 주었다. <사진 21>은 '98 S/S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으로, 반



<사진 20> Men' collection
'92/'93 F/W Vol.12, p.27



<사진 21> Uomo Collezioni
'98 S/S N.18, p.139



<사진 22> Men' collection
'01/'02 F/W Vol.12, p.2

짜이는 광택의 느낌과 문양이 비잔틴 시대의 느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사진 22>는 '01/02 F/W의 작품으로, 중세 기사의 얼굴을 과감하게 가슴에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전통문양은 주로 S/S 컬렉션에 나타났으며,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

8. 예술적 문양

많은 예술적 기본 요소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부가되어 예술과 패션을 접목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림이나 조각 등 다양한 예술적 분야에서 실험되었던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던 문양이 많이 보였으며, 특히 칸딘스키, 피카소, 크립톤 등 많은 화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사진 23>은 '00 S/S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으로, 그라피티한 문양이다. 그라피티는 풍자가 섞인 낙서와 같은 그림을 말하는 것으로 70대 초기 뉴욕에서 시작되었다. <사진 24>는 '03 S/S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으로, 셔츠에 마블 문양이 보여진다. 마블은 대리석의 느낌으로, 서로 이질적인 물과 기름이 형성해 내는 표면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말한다. <사진 25>는 '04 S/S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으로, 가슴에 사람의 상반신만 확대하여 그려 넣으므로 팝아트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예술적 문양은 주로 S/S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졌으며, 셔츠를 비롯하여 점퍼 이너웨어 등 캐주얼 웨어에 나타났다.

9. 이국적 문양

베르사체 디자인의 이국적 정서는 70년대 말 시작된 특징으로, 여행에서의 인상을 가벼운 변화나 구성으로 표현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느낀 문화의 의복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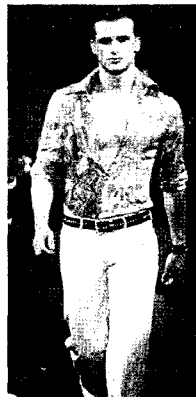
<사진 26>은 '91/92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가까운 동쪽에서부터 먼 동쪽에 이르기까지의 아시아의 프린트가 아래 위 또는 거꾸로 배치되기도 하여 장식되었다. <사진 27>은 '92/93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하와이언 풍의 야자수에 사용되는 그린이나 블루의 색상이 아닌 독창적인 색을 사용함으로써 이국적인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 28>은 '01/02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가죽 소재에 표현된 문양이 멕시코 원주민의 아즈텍 문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V. 베르사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표현 방법

베르사체는 문양 사용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나



<사진 23> Men' collection
'00 S/S Vol.44, p.132



<사진 24> Men' collection
'03 S/S Vol.54, p.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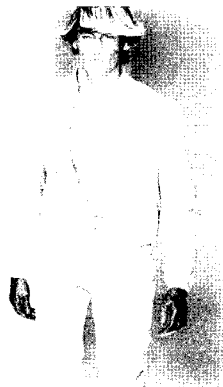
<사진 25> Men' collection
'04 S/S Vol.58, p.88



〈사진 26〉 Versace signatures
`91/92 F/W, p. 166



〈사진 27〉 Versace signatures
`93 S/S, p.102



〈사진 28〉 Men' collection
`01/02 F/W Vol. 48, p.99

타났는데, 매 시즌 하나의 주제가 담긴 패턴이 선정되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졌다. 남성복 베르사체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 디자인 전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모티브의 재구성

의상에 사용되는 문양은 매시즌 트렌드의 변화와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선정된 컨셉에 맞는 문양이 디자인된다. 이때 문양은 새롭게 창작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문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단조로움을 없애고 변화와 울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구성되기도 한다.

〈사진 29〉는 `91 S/S 컬렉션에 나타난 원도 패턴 체크로, 아이템에 따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중간 정도의 것으로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적용하였으며, 〈사진 30〉은 `98/99 F/W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으로, 체크를 크게 확대하여 대담하게 슈트에 사용함으로써 체크느낌보다 선을 이용한 그래픽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베르사체 남성복에서는 도트나 체크 등 평범하게 사용되는 문양을 정해진 화면에 패턴 구성을 조밀하게 하거나 간격을 넓혀서 여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그 시즌 정해진 문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약간의 변형을 줌으로써



〈사진 29〉 Men' collection
`91 S/S Vol.6,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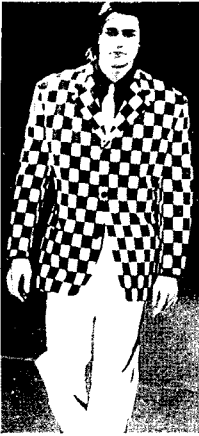


〈사진 30〉 Uomo Collezioni
`98/99 F/W N.24, p.122

주변과의 대비를 이루어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새로움을 주었다.

2. 문양 수집 및 분석

문양 디자인의 발상에 있어 하나의 주제가 선정되면 문양에 대해 자료수집을 한다. 이때 자료수집의 방법은 스케치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다. 또 실물을 수집하거나 직물 문양을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창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진 31> Men' collection
'95/'96 F/W 24(24), 122



<사진 32> Uomo Collezioni
'95/'96 F/W 24(24), 122

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진 31><사진 32>는 '96/'97 F/W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로, 가로와 세로에 흰색과 검정색의 두 색이 바둑판 모양을 이루며 타일을 늘어놓은 듯한 느낌의 블록 체크 문양, 검은 안경의 지적인 이미지에 경사진 체크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아가일 체크 문양 등 다양한 체크 문양이 한 시즌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 33><사진 34><사진 35>은 '96/'97 F/W 컬렉션의 작품들로, 표범무늬인 재규어문양이 의외의 독

특한 색상과 접목되어 추상적인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호랑이 무늬의 타이거문양과 또다른 애니멀 문양인 얼룩말의 지브라 문양이 함께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베르사체 남성복에서는 각 시즌 선택된 문양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종류를 이끌어 냈다. 체크가 주제로 정해졌을 때는 윈도 체크, 깡검 체크를 비롯하여 세퍼트 체크, 하리퀸 체크, 아가일 체크 등 매우 다양한 체크가 셔츠, 재킷, 슈트, 넥타이 등의 아이템에 사용되었으며, 주(Zoo)패턴이 주제로 정해졌을 때는 애니멀 문양을 집중 분석하여, 타이거 패턴, 재규어 패턴, 지브라 패턴 등 한 가지 느낌을 가진 다양한 다른 패턴으로 강하고 색시한 느낌을 주었다.

3. 의외의 문양 혼합

비슷한 성격을 갖는 개체의 결합은 고상하고 품격이 있어 그 나름대로 통일감과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색다른 이미지의 개체를 결합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리감 때문에 다소 이상할지 모르지만 일단 "재미있다"라는 흥미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사진 36>은 '9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응용한 듯한 문양을 몸판에 배치하고, 어깨, 소매, 도련부분에는 꽃문양이 함께 표현된



<사진 33> Uomo Collezioni
'96/'97 F/W N.18, p.138



<사진 34> Uomo Collezioni
'96/'97 F/W N.18, p.139



<사진 35> Uomo Collezioni
'96/'97 F/W N.18, p.139



〈사진 36〉 Men' collection
'91 S/S Vol.6, p.23



〈사진 37〉 Men' collection
'91 S/S Vol.6, p.23



〈사진 38〉 Men' collection
'96/97 F/W, p.140

셔츠를 선보였다.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두 문양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화려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으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진 37〉은 '92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셔츠의 양쪽 가슴에 바로크 문양을 앞여밈부분에 배치하고, 어깨, 소매에는 도트문양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사진 38〉은 '96/97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상의 가슴 부분에는 체크문양을, 배부분과 소매는 스트라이프 문양을 배치하여 이색적이면서 경쾌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베르사체 남성복에서는 문양 표현에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지 못하는 의외의 문양들을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서로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이질적인 모티브의 결합이 주는 어색함보다 독창적이고 색다른 느낌을 부각시켰다.

4. 사실적 문양의 도입

문양의 디자인은 일상적인 사고 안에서 정해진 주제에 따라 자연물이나 인공물 또는 추상적인 형태에서 문양에 필요한 요소들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문양디자인의 발상은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순간순간의 탐구력으로 이루지며, 영화를 보거나 박물관을 하거나 또는 해변에서의 수많은 경험들이 디자인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적 혹은 예술

적 모티브들은 특정위치나 독특한 배열에 따라 재창조되어 특징 있고 생생한 패턴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사진 39〉는 '96 S/S 작품으로 투명한 비닐 소재에 하트 모양이 아플리케 되어있다. 투명한 비닐 소재가 주는 미래적인 이미지 위에 하트 문양을 가지런히 배열함으로써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부가하여 젊고 섹시한 남성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사진 40〉은 '99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마치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이 자유롭게 되살아 난 듯한 작품이다. 〈사진 41〉은 '99 S/S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으로, 용문양을 모티프로 한 사실적인 묘사로서 셔츠의 V 존에 원포인트 배치되어 시선을 집중시켰다.

베르사체 남성복에서는 과거의 역사나 이국적인 문화, 또는 예술적 작품을 사실 그대로 옷에 적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때 사실 그대로 묘사되기도 하고 패턴이 특정 위치에 또는 특이한 방법으로 배열되기도 하였다. 즉 하와이언 풍경이나 만국기가 그대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팝아트, 옵아트, 액션페인팅 등의 작품이 아플리케, 자수, 비즈 장식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5. 전체 아이템에 사용

베르사체는 문양이 정해지면 어김없이 셔츠, 팬



〈사진 39〉 L' Uomo Vogue
'96 S/S N.275, p.54



〈사진 40〉 Uomo Collezioni
'99 S/S N.26, p.107



〈사진 41〉 Uomo Collezioni
'99 S/S N.26, p.109

츠, 슈트 등 모든 종류의 아이템에 적용시키기를 좋아했다. 특히 평범한 문양일수록 같은 주제의 문양을 상의와 하의는 물론 이너웨어 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코디네이트시켰다.

〈사진 42〉는 '91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도트 문양의 슈트에 도트 문양의 블라우스 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어진 도트는 잔잔한 느낌의 핀도트로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바디 전체에 사용함으로써 시선을 끌고 있으며, 윤택한 효과를 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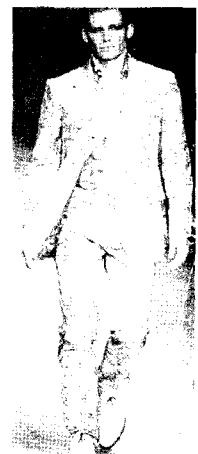
한다. 〈사진 43〉은 '95/96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체크 문양의 슈트에 체크 문양의 코트와 체크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즉, 셰퍼드 체크(Shepherd check)의 슈트와 윈도우체크(Window check)의 코트를 매치로, 전통적인 문양의 사용이지만 역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사진 44〉는 '02 S/S 컬렉션의 작품으로, 당초문양이 슈트와 이너웨어에 전체적으로 보여졌다.



〈사진 42〉 Men' collection
'91 S/S Vol.6, p.15



〈사진 43〉 Men' collection
'95/96 F/W Vol.24 p.31



〈사진 44〉 Men' collection
'02 S/S. Vol.50, p.90

VI. 결론

베르사체 남성복에는 매우 다양한 문양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표현방법도 매우 독특하였다. 매 시즌 하나의 주제가 담긴 패턴을 선정하여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베르사체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르사체 남성복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는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 그래픽, 플로랄 등 일반적인 문양과 전통문양이나 예술적 문양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S/S 컬렉션에서는 도트나 플로랄, 그래픽 등 밝고 경쾌한 느낌의 문양들이 사용되었으며, F/W 컬렉션에는 스트라이프나 체크 등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의복에 나타났다.

둘째, 베르사체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표현방법은 기존의 문양을 확대·축소하는 방법, 각 시즌 선택된 문양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종류의 문양을 이끌어 내는 방법, 생각지 못하는 의외의 문양을 혼합하는 방법, 과거의 역사나 이국적인 문화, 또는 예술적 작품을 그대로 또는 변경 반영하여 옷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셋째, 베르사체 남성복에서는 같은 주제의 문양을 셔츠, 팬츠, 재킷, 코트 등 거의 모든 아이템에 사용하였고, 상의와 하의는 물론 이너웨어와 넥타이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문양으로 코디네이트 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베르사체 남성복에 사용된 문양의 표현 방법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구체적인 표현 특징이 있었다. 이에 우리 나라 남성복에도 이러한 표현 방법들이 활용되어 다양한 문양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정희(2004). 패션의 심리학-남성들의 멋내기 혁명- 스포츠 투데이. 자료검색일 2004. 7. 26. 자료출처 <http://news.media.daum.net>
- 강여선(2004).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 량과 맞음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희(2002).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인숙(2003). 서비스품질에 따른 고객만족과 관계마케팅:남성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영(2003). 현대 영국 남성복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진(2001). 남성 정장 상의원형 설계 및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2003). 남성캐주얼 재킷 원형 제도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2003). 현대 남성복 디자인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선(2003). 남성 트레이디셔널 캐주얼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백화점 매장 VMD 전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복(2002). 소비자의 의복 제품 구매에 있어서 불만의 유형과 성격특성이 불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선미(2000). 1990년대 이탈리아 남성복디자인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섬유패션연감(1997). 서울: 한국섬유신문사.
- 한국패션브랜드 연감(2002/2003). 서울: 어패럴뉴스사. Esquire(1999.8)
- Richard Martin(1998). *Gianni Versace*.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91/92 F/W Uomo Collezioni (1991). Milano: Zanfi Editori.
- 92/93 F/W Uomo Collezioni (1992). Milano: Zanfi Editori.
- 93 S/S Uomo Collezioni (1993). Milano: Zanfi Editori.
- 93/94 F/W Uomo Collezioni (1993). Milano: Zanfi Editori.
- 94 S/S Uomo Collezioni (1994). Milano: Zanfi Editori.
- 94/95 F/W Uomo Collezioni (1994). Milano: Zanfi Editori.
- 95 S/S Uomo Collezioni (1995). Milano: Zanfi Editori.

95/96 *F/W Uomo Collezioni* (1995). Milano: Zanfi Editori.
 96 *S/S Uomo Collezioni* (1996). Milano: Zanfi Editori.
 96/97 *F/W Uomo Collezioni* (1996). Milano: Zanfi Editori.
 97 *S/S Uomo Collezioni* (1997). Milano: Zanfi Editori.
 97/98 *F/W Uomo Collezioni* (1997). Milano: Zanfi Editori.
 98 *S/S Uomo Collezioni* (1998). Milano: Zanfi Editori.
 98/99 *F/W Uomo Collezioni* (1998). Milano: Zanfi Editori.
 99 *S/S Uomo Collezioni* (1999). Milano: Zanfi Editori.
 99/00 *F/W Uomo Book* (1999). Milano: Zanfi Editori.

00 *S/S Men's Collection* (2000). Tokyo: GAP JAPAN.
 00/01 *F/W Men's Collection* (2000). Tokyo: GAP JAPAN.
 01 *S/S Men's Collection* (2001). Tokyo: GAP JAPAN.
 01/02 *F/W Men's Collection* (2001). Tokyo: GAP JAPAN.
 02 *S/S Men's Collection* (2002). Tokyo: GAP JAPAN.
 02/03 *F/W Men's Collection* (2002). Tokyo: GAP JAPAN.
 03 *S/S Men's Collection* (2003). Tokyo: GAP JAPAN.
 03/04 *F/W Men's Collection* (2003). Tokyo: GAP JAPAN.

(2004년 7월 30일 접수, 2004년 10월 19일 채택)